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사 경쟁 치열... '불법 홍보' 논란

재개발 조합, 포스코건설에 '홍보지침 위반' 공문 발송

포스코 "용적률·공사비 내 대안 설계...지침 위반 아냐"

8000억원대 대규모 사업인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을 놓고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 홍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에 '입찰지침 및 홍보지침 위반 알림' 공문을 보냈다.

조합은 포스코건설이 입찰 직후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라고 홍보한 내용을 지적했다.
조합은 공문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을 근거로 "제출 의무가 있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 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체 사용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합이 검토하지도 못한 사항에 대해

위법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라며 "조합원들 내에서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참여규정과 홍보지침에는 '홍보자료는 입찰제출 서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포스코건설이 입찰·홍보지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 "제출한 입찰내역과 관련 없는 불법 홍보는 시공사 선정 이후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다"며 "불법 홍보를 즉시 중지하고 조합 입찰지침서와 국토비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롯데건설 측은 이 공문을 토대로 포스코건설이 입찰참여와 홍보지침을 어긴 만큼 상당한 입찰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용적률이나 공사비

변경 없이 조합원들의 선택폭을 넓히는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평형대 대안설계로 1안, 2안, 3안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분양에 효과적인 소형 평형대 비율을 높일지, 대형평형대 비율을 늘릴지 등의 차이이다.
3안은 대형평형을 선호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형평형 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변경되거나 용적률이 바뀌면 입찰 지침 위반이지만 용적률 변경 없이 조합원들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

라며 "인허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검토도 끝냈다"고 말했다.
한편,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은 광주 북구 풍향동 600-1번지 일원 16만465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2995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만 8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종 시공사는 11월 9일 조합 총회에서 결정된다.

신봉우 기자

완도군, 국내 최초 '해양치유산업' 민자유치 시동...투자 분위기 고조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간 투자자들이 잇따라 완도를 방문, 대상 부지를 확인하는 등 투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해양치유산업은 국내 최초로 완도군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양치유자원을 국민의 건강,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여촌 활력 산업이다.
군은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 건립하기 위해 2021년 말 완공 목표로 실시계획 중이다.
해양치유센터에는 수(水)치료, 해양생물치유, 해양광물치유, 해양기후치유 시설 등 22개 테라피 시설이 갖춰진다.
해양치유센터 주변 치유단지에는 민간병원과 마린헬스리조트, 마린헬스레지던스, 상업시설, 문화치유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민자 유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LA한인상공회의소 임원 17명이 완도군 투자 대상지 팸투어를 실시했다.
LA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27일



미국 LA현지에서 해외 투자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완도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완도군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MOU를 체결한 LA H부동산 대표가 10월 25일부터 1박 2일 간 완도군 전역에서 투자 대상지를 물색했다.
정도리 구계동과 완도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해양관광자원 및 해양치유산업 추진 사항을 확인했다.
특히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게 될 신지명사십리 제2주차장에서 해양치유산업 사업화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거용 숙박 시설인 마린헬스레지던스 사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원도=김광수 기자

농협보성군지부, 국산김치 이용 업무협약

보성군의회 · 외식업 군지부와 힘 모으기로

농협보성군지부(서희수 지부장)는 최근 농협군지부 회의실에서 보성군의회(신경균 의장)·(사)한국외식업중앙회 보성군지부(문호진 지부장)와 국산김치 이용 음식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 확대, 적정가격의 농협김치 공급, 국산김치사용 음식점 애용운동 전개 등으로 채소

생산 농가의 소득향상과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의 매출증진을 위한 것이다.
농협은 올해 4월부터 보성군의회, 보성군과 협력해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임직원 내부부터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희수 농협보성군지부장은 "전국적으로 외식·급식업소에서 수입김치를 사용하는 비율이



66%에 달하고 있어 국산김치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며 "국산김치 이용 음식점을 적극 애용

하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성=인규일 기자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강화한다

내년부터 원형보존 우선지원 · 자부담 30%이상 의무부담

강진군이 2020년 본예산부터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함에 있어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사업을 우선지원하고, 자부담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를 제외한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자료를 말하며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강진군은 지난 2007년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10월 현재 56개(유형 45개, 무형 11개)를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조례에 의거해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강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최치현 문화예술과장은 "최근 들어 보조금 지원요청이 너무 많

아져 내년부터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하는데 보수가 시급한 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강진군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담한다는 방침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며 "향토문화유산이었던 강진 백운동 원림이 국가명승으로 지정된 것처럼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충실히 하여 전라남도 또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시월진도 5G요

2019 진도문화예술축제 & 아리랑축제

10.5.(토) ~ 11.3.(일) 진도 향토문화회관 일원

진도문화예술제		진도아리랑축제	
10. 5. 2019 진도 대한민국 국악제	10. 26. ~ 10. 27. 2019 제2회 진도 수산물축제	10. 31. 19:00 군민의 날 축하의 밤(철마광장)	
10. 12. ~ 10. 13. 제13회 진도 대한민국 고수대회	11. 2. 제15회 대한민국 소치 미술대전 시상식	11. 1. 10:30 군민의 날 기념식(공설운동장)	
10. 19. 2019 남도 명인·명창 국악의 향연	11. 2. 제2회 청소년 열린음악회	11. 1. 19:00 국악의 향연(철마광장)	
10. 22. 판소리극 모듈전 공연	11. 2. ~ 11. 3. 제22회 대한민국 남도민요경창대회	11. 1. 20:30 미스트롯 축하쇼(철마광장)	
10. 26. 제1회 대한민국 소년 휘호대회			* 출연가수 : 송기인, 정미애, 김소유, 정다경

| 주최 | Jindo 진도군 | 주관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진도지회

대/한/민/국 보배섬 진도
민속문화예술축제